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긍정적 사고,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효과

문인오¹ · 이경완¹ · 정석희²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¹,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²

Effect of Image Making Programs on Image Making Efficacy,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Moon, Inn Oh¹ · Lee, Gyoung Wan¹ · Jeong, Seok Hee²

¹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²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effect of Image Making Programs on image making efficacy,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124 nursing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and were assigned to the treatment group (n=62) or the comparison group (n=62). The treatment was the Image Making Program, which was held twice over 2 days for 120 minutes per session. Data were collected from August to September 2012,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Kolmogorov-Smirnov test, χ^2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one-tailed Mann-Whitney U test, independent one-tailed t-test with the SPSS/WIN 21.0 program. **Results:** Nursing students in the treatment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image making efficacy, positive thinking, and nursing professionalism than those in the comparison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mage Making Program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increasing image making efficacy, positive thinking,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However, further research and practices are needed in this area.

Key Words: Nursing students, Image making, Positive thinking, Self esteem, Professionalism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가 곧 경쟁력으로 통하는 이미지의 연출시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개인의 역할

에 따른 이미지메이킹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미지는 자신을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이다. 이미지메이킹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 자기이미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자신의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주요어: 간호대학생, 이미지메이킹, 긍정적 사고, 자아존중감, 전문직관

Corresponding author: Lee, Gyoung Wan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514 Iksan-daero, Iksan 570-750, Korea.
Tel: +82-63-840-1316, Fax: +82-63-840-1319, E-mail: wan1010@wu.ac.kr

- 본 연구는 2014년도 원광보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in 2014.

Received: Nov 12, 2014 | Revised: Dec 17, 2014 | Accepted: Jan 5,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관리하는 행위로, 개인의 참 자아인식과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제고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 및 자기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노력을 의미한다[1].

대학생 시기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자기이미지를 모색하고 자신이 갖게 될 통합된 자아를 형성하고 추구하는 시기로서[2],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 즉 자기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이미지란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인 특성 등이 고유하고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1], 이러한 이미지는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왜곡될 수 있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거나 타인에게 보여 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3]. 특히 간호대학생은 취업을 하기 전에 교과과정상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질병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치료적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데, 간호대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치료적 관계를 통해 돕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4],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이 중요하다[5]. 만약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자신으로부터 표현되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서 자신의 이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전달되고 이로 인해 부적절한 대인관계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표현의 차별화된 전략으로서 간호대학생들에게 이미지메이킹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6].

이와 같이 이미지메이킹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지메이킹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이미지메이킹 효능감[1,7,8], 긍정적 사고[7,8] 및 자아존중감 [1,7,8] 등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학문을 배우는 간호대학생들을 고려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이란 자기이미지를 관리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가치 있는 유기체로 인식하며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7]. 이때 대학생 시기는 사회성의 발달로 자신의 신체 및 외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흔히 외적이미지에만 편향되게 가꾸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지 개선의 일시적인 효과만 주게 되므로 내·외적인 이미지가 서로 잘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내적이미지는 자아정체감과 존중감으로 형성된 자아개념,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에 의해 형성이 된다[1]. 이러한 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 중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자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으로 자아개념과 연합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로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9].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갖는 감정은 그 자신에 대하여 갖는 감정과 유사하여[10], 신체이미지에 만족하면 자아존중감도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외모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12]. 긍정적 사고는 사물이나 현상이 가진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며,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통해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대처방식 또는 인지적 태도를 의미한다[13]. 따라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7]. 또한 긍정적 사고는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신체적 매력에 대한 타인의 우호적 반응에 의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실제보다 매력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사고 경향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4].

이미지는 자신의 내면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겉으로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이미지메이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적이미지의 바탕을 이루는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사고가 매우 중요한 내적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사고가 바탕이 될 때 이미지메이킹효능감 또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메이킹이 되려면 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긍정적 사고를 고취시키고, 외적으로는 자신의 이미지에 어울리면서 동시에 시간과 장소 및 상황에 맞는 표현 방법을 학습하고 단련하여 표현능력 및 자신감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7].

이와 같이 이미지메이킹 교육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효과가 규명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들이 활동할 보건 의료 환경과 간호학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구성

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 관련 변수들 이외에도 특히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연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간호전문직관은 개인의 생각 속에 각인된 간호의 모습, 전문직인 간호사로서의 간호이미지로,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사의 활동이나 직분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이며, 간호활동에 있어서 기준과 행동을 평가하는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15], 이에 앞으로 간호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16]. 특히 현재 신규간호사가 임상에서 전문직 사회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가 증가함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17].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은 ‘자기 모습’, 자기이미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간호사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위로 연결 되도록 하여 결국 간호사로서의 신념, 가치, 긍지, 소명감,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전문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간호대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만족감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간호전문직의 이미지 및 전문성 제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이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긍정적 사고,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내적이미지와 외적 이미지를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간호학과 특성에 맞는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긍정적 사고,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간호대학생

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간호대학생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긍정적사고 정도가 높을 것이다.
- 가설 3.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간호대학생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다.
- 가설 4.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간호대학생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긍정적 사고, 자아존중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행정적인 규모가 비슷한 중소도시인 I시와 K시에 소재하는 2개의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I시 소재 1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처치의 확산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조군은 K시 소재 1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보면, 1, 2학년의 경우 교양과목과 전공기초과목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임상실습은 3학년부터 진행되는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나 유사 프로그램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상태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두 군 간의 중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수준($\alpha = .05$), 효과의 크기($d = .50$), 검정력($1 - \beta = .80$)을 기준으로 independent one-tailed t-test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실험군 51명, 대조군 51명으로 총 102명이 산출

되었으며, 연구참가자들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65명, 대조군 65명을 실험대상자로 배정하였다. 실험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거나 설문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62명, 대조군 62명의 총 124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교과과정상 임상실습을 시작하는 3학년 이전에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래의 간호사가 될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신감 향상, 더 나아가서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3. 연구도구

1)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Kim[1]이 개발한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단일차원의 총 7개 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미지메이킹에 대한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개발당시 Cronbach's α 는 .8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 Cronbach's α 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3로 나타났다.

2)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는 Kim 등[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6개의 긍정문항과 2개의 부정문항의 총 18개 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7]에서 Cronbach's α 는 .82,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가 개발하고, Jon[20]가 번역한 Rosenberg's Self-Esteem Scale (RSES)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의 긍정문항과 5개의 부정문항의 총 1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본 도구의

α coefficients는 .72에서 .87 범위였으며, test-retest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19],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7]에서 Cronbach's α 는 .7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21]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9개 문항 중 간호대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경험이 없어 본 도구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 세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총 26개 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당시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92였으며[16], 총 26문항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4. 연구진행

1) 연구자의 준비

본 프로그램은 연구자들 중 간호관리학을 전공하는 간호학 교수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연구자는 상급종합병원 근무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비스아카데미인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서 CS Course, Service Leader Course 및 Service Leadership Course 등을 이수하였으며, 한국리더십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Crucial Conversation Training, 스팟 아이스브레이크, 창의적 교수법(Creative Training Techniques, CTT) 교수과정 등 의사소통, 리더십, 자기개발 및 교수법 관련 다수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및 의료질향상팀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의료기관의 고객만족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병원 서비스강사 및 서비스코디네이터로 활동하였다. 또한 병원 재직시절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직원,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0회 이상의 서비스 리더십 및 이미지메이킹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는 간호관리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들의 간호전문직관 및 리더십 등 다양한 간호관리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간호학교수법연구' 등 교수법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해오면서 특히 창의적 교수법 관련 다수의 특강을 여러 대학교에서 진행한 경향이 있다.

2)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구성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은 교수설계모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DDIE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모형 단계에 따라 구성되었다[22].

(1) 분석단계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내용구성을 위하여 먼저 요구분석, 학습자분석, 환경분석 및 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요구분석은 본 연구팀의 일원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예정 간호대학의 담당 교수가 본 프로그램과 관련한 간호대학생들 및 대학 측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학습자 분석은 교육에 참여할 학생들의 선수학습 및 태도 등을 파악하였으며, 학습환경 분석은 교수설계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자재, 시설, 경비 등의 물적자원 및 개발 기간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 내용구성을 위하여 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제분석 시 교육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이미지메이킹 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이미지메이킹 및 서비스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의 교육내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KISS), 국회전자도서관, 과학기술학회마을, CINAHL, Pub-med 등을 이용하였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삼성에버랜드 서비스 아카데미의 서비스기본예절과정, 의료서비스전문과정, 서비스리더십과정, 전북대학교병원의 서비스아카데미 교육내용 등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및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이미지메이킹 교육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하여 간호전문직관 관련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반인이 아닌 간호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도록 실제 의료기관 및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에게 요구하는 이미지 및 전문직관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를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의 목적인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및 이미지메이킹 등 간호대학생들 역량증진에 필요한 내용을 지식과 기술의 2영역으로 나누고, 이를 이론과 실습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지식은 비전설정의 중요성, 목표설정의 중요성, 21세기 환경변화와 생존전략, 교육 및 학습의 필요성, 인간관계론, 이미지메이킹 주요전략, 개인브랜드파워, 성공하는 직장인에 대한 8개 세부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미지메이킹 기술은 비전공유, Want-Have matrix 작성, 그리고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옷차림 및 화장법 등에 대한 실습의 7개 세부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설계단계: 학습목표 설정, 수업의 설계

설계단계에서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먼저 학습목표 설정은 이미지메이킹의 지식과 기술영역의 세부주제에 따라 지식은 4개, 기술은 2개의 학습목표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학습목표에 따라 이미지메이킹 지식과 기술은 이론 및 실기로 구성하고 실기는 Visioning, Want-Have matrix 작성하기, 주요 이미지메이킹 전략 실습을 이용한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이론과 실기수업 설계 시 주요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최근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창의적 교수법(Creative Training Technique)[23]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수매체로는 PPT, 동영상 등의 시청각매체를 선택하였다.

(3) 개발단계

개발단계에서는 학습목표에 따라 세부내용을 구성하고 교수방법, 교수매체, 자료개발방법 등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실제 적용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Table 1).

먼저 교수 자료의 초안을 작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서비스아카데미 전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및 프로그램이 실시된 간호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프로그램은 교육내용의 수준 및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 2시간, 실기 2시간의 총 4시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미지메이킹 지식은 크게 네 개의 파트, 총 2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이미지메이킹의 필요성, ‘비전 및 목표설정의 중요성’, ‘목표관리(MBO)’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파트는 ‘21세기 환경변화와 생존전략’, ‘교육 및 학습의 필요성(학습조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파악과 함께 다른 외부의 변화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학습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교육과 학습조직의 필요성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는 Learning Fable Series 중의 하나인 ‘늑대뛰어넘기’[24]라는 책의 내용을 그림과 함께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파트는 ‘이미지 메이킹 및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결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데일카네기의 인간관계론[25]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이미지메이킹의 주요 전략으로서 미소, 인사, 대화, 옷차림, 칭찬에 대한 이론 및 전략 등에

Table 1. Image Making Program

Day (hours)	Areas	Part	Objectives	Contents of activities	Teaching methods	Teaching materials
1st day (2 hours)	Knowledge (The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ories to be shared with students · The person who knows himself and his opponent will be invincible. · Those who succeed have something special. · Brand yo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set the purposes and motives of the program · To perceive the self and changes in external environment · To find main strategies for human relations in successful people ·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value and brand m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cessities of image making · Importance of visioning · Importance of the goal and objective setting (Management by objectives) · 21C Environmental changes and survival strategies · Necessities of education and learning (Learning organization) · (Dale Carnegie's) Human relationship · Main strategies for image making · Individuals' brand power · Successful workers 	Lecture, CTT	PPT, moving pictures
2nd day (2 hours)	Skill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 myself · Practice detailed strategies for image m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myself through various activities · To practice detailed strategies for image ma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on sharing · Want/have matrix making · Practice smiling · Practice greeting · Practice conversation · Practice praising · Practice dressing and make-up 	Demonstration, practice, CTT	PPT, moving pictures

CTT=Creative training techniques.

대한 내용을 상세히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실제 의료기관 면접 등에서 있었던 실제사례 및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간호사로서의 이미지 및 옷차림 등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네 번째 파트는 ‘브랜드 유’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개인 브랜드 파워, 성공하는 직장인의 특징 등을 다루어 개인의 가치 및 자신의 브랜드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론시간 중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자신의 비전과 간호직과의 연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간호전문직관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에게 특화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실습은 크게 두 개의 파트, 총 2시간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파트는 ‘나를 파악하자’는 주제 하에, ‘비전공유 활동’ 및 ‘Want-Have Matrix’ 작성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파트는 ‘이미지메이킹 세부전략실습’으로 이론 강의에서 학습한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옷차림 및 화장법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자가 직접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의 행동 및 태도를 교정을 해주는 등 실제적으로 실천전략을 몸소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4) 실행단계

실행단계는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수자료를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관리하는 단계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2일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되

었다. 첫째 날은 지식중심의 교육이 2시간동안 이루어졌다. 교육은 주입식 강의가 아닌 창의적 교수법을 기반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중심의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동영상, PPT 등 다양한 교수학습매체가 활용되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비전 및 목표 설정 등 당일 학습한 내용을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은 후 다음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본 프로그램을 1일 4시간이 아닌 2일 4시간 과정으로 구성한 목적이 바로 첫날 교육 후 다음날 교육 전까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프로그램 2일차에는 전날 학습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과 더불어 이미지메이킹 세부전략 등에 대한 실습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2일간의 4시간 프로그램이 총 4팀, 총 62명의 실험군에게 제공되었다.

(5) 평가단계

평가단계는 교수자료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교육이 완료된 이후에 참여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자 및 교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평가회를 실시하였다.

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실험처치 및 실험군의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8월 20일부터 2012년 8월 23일까지였으며 대조군의 자료수집은 실험군과 다른 도시에 위치한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3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으로 연구자에 의한 연구결과에 미치는 제3변수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부재 하에 연구보조자가 연구의 목적과 과정, 방법, 연구참여로 인한 유익성과 유해성, 중단 및 철회 가능성, 비밀유지 및 익명성, 연구목적외로만 사용할 것,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면 동의 하도록 하였고, 프로그램 제공 전과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군이 속한 대학의 교수가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교육은 이와 관련한 교육 경험이 많은 타 대학 간호학과 교수가 진행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과 설문 내용을 전달하고 자료

수집 허락을 받았으며, 학생들에게 실험군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에 대한 설명과 절차, 윤리적인 측면 등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서면동의 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조군에게 사전 조사 실시 후 실험군과 동일한 시간간격을 두고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변수를 Kolmogorov-Smirnov test로 정규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이미지메이킹 효능감($p=.291$), 긍정적사고($p=.135$), 자아존중감($p=.022$), 간호전문직관($p=.645$)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자아존중감은 비모수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그 외 변수들은 모수통계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χ^2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검정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동질성 검정은 자아존중감은 Mann-Whitney U test,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긍정적 사고, 간호전문직관은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프로그램 전후 차이에 대한 방향성 가설의 검정을 위해 자아존중감은 one-tailed Mann-Whitney U test,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긍정적 사고, 간호전문직관은 independent one-tailed t-test로 분석하였다.

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학과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추후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있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전 측정변수의 동질성 검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간호학과 2학년으로 실험군 62명, 대조군 62명이었다. 나이는 두 군 모두 21~25세가 49명(79.1%), 51명(82.3%)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군에서 종교가

있는 학생이 27명(43.5%), 대조군에서 33명(53.2%)이었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의 경우 중을 선택한 대상자가 44명(71.0%), 대조군의 경우 54명(87.1%)으로 가장 많았다. 학과 생활 만족도의 경우 실험군은 평균 2.40±0.71점, 대조군은 2.44±0.86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을 한 결과 나이, 종교, 경제적 수준, 학과생활 만족도 등의 일반적 특성과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긍정적 사고,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의 모든 변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p>.05$)(Table 2).

2.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1) 가설 1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과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0.41±0.51점, 대조군이 0.01±0.3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75, p<.001$). 따라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간호대학생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3).

2) 가설 2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과 후의 실험군과 대

조군간의 긍정적사고의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0.23±0.28점, 대조군이 0.08±0.2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08, p<.001$). 따라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간호대학생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긍정적사고 정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Table 3).

3) 가설 3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과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자아존중감의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0.40±0.30점, 대조군이 -0.01±0.32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7, p=.288$). 따라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간호대학생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지지되지 않았다(Table 3).

4) 가설 4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과 후의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간호전문직관의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이 0.27±0.36점, 대조군이 0.02±0.29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4.09, p<.001$). 따라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간호대학생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지 않은 간호대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utcome Variables (N=124)

Characteristic	Categories	Exp. (n=62)	Cont. (n=62)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 20	11 (17.7)	10 (16.1)	2.75	.942
	21~25	49 (79.1)	51 (82.3)		
	≥ 26	2 (3.2)	1 (1.6)		
Religion	Yes	27 (43.5)	33 (53.2)	1.69	.941
	No	35 (56.5)	29 (46.8)		
Subjective economic level	High	0 (0.0)	1 (1.6)	2.65	.093
	Middle	44 (71.0)	54 (87.1)		
	Low	18 (29.0)	7 (11.3)		
Satisfaction with nursing school life		2.40±0.71	2.44±0.86	0.23	.821
Image making efficacy		3.38±0.51	3.64±0.54	2.72	.070
Positive thinking		3.37±0.39	3.60±0.47	2.90	.400
Self-esteem		3.14±0.31	3.16±0.29	0.48	.635
Nursing professionalism		3.61±0.43	3.73±0.54	1.38	.171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긍정적 사고, 자아존중감 및 간호 전문직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서, 주요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이 증가한 연구[1],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자기이미지 및 자기주도 학습 태도 연구에서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이 향상된 연구[8]들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얼굴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의 얼굴이미지 효능감이 향상된 연구[7]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자신의 이미지메이킹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시기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도기로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서 개인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자기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는 이미지메이킹 효과에 대해 인식하고 이미지 관리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내·외적인 이미지를 균형 잡히게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 회복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이미지메이킹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은 자신의 노력과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장점을 살린 이미지의 연출 및 관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긍정적 사고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사고가 향상된 연구결과[8]와 얼굴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사고가 향상된 연구[7]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진취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성향향상에 외적 이미지메이킹 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는 Ha[2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즉,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은 보여지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뿐 만아니라 내적인 심리상태 및 자신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Kim[8]은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수준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적이미지는 물론이고 외적 이미지 관리를 통해 긍정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Song[7]은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게 되면 얼굴 피부에 생기가 생기고, 표정이 밝아지면서 인상이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외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미지메이킹 기술은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게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자신감과 긍정적사고 에도 영향을 미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행히 이미지는 개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보다는 후천적으로 개발되어지는 요소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향상되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둔 간호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는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나 앞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임상상황에서 많은 대상자들을 상대해야 하고 광범위한 지식과 훈련된

Table 3. Effect of Image Making Program

(N=124)

Variables	Groups	Pre	Po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Image making efficacy	Exp. (n=62)	3.38±0.51	3.79±0.53	0.41±0.51	3.75	< .001
	Cont. (n=62)	3.64±0.54	3.75±0.67	0.11±0.35		
Positive thinking	Exp. (n=62)	3.37±0.39	3.61±0.35	0.23±0.28	3.08	< .001
	Cont. (n=62)	3.60±0.47	3.69±0.53	0.08±0.26		
Self-esteem	Exp. (n=62)	3.14±0.31	3.18±0.25	0.40±0.30	1.07	.288
	Cont. (n=62)	3.16±0.29	3.15±0.36	-0.01±0.32		
Nursing professionalism	Exp. (n=62)	3.61±0.43	3.88±0.40	0.27±0.36	4.09	< .001
	Cont. (n=62)	3.73±0.54	3.76±0.51	0.02±0.29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기술을 요하는 간호사의 길을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사고는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으로의 방향 설정에 좋은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에 대한 변화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미지메이킹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7,11],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들[2,8,27]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 보다 실시 후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 점수가 증가하였지만 그 수치가 미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함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실시한 시간이 총 180분~200분으로, 본 연구의 240분과 유사하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특성에 맞게 간호 전문직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더 첨가되었기에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적 할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또한 본 연구와 대상자가 다르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구[27]에서 총 10회에 걸쳐 600분을 실시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시간설정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시간적인 할애 외에도 일괄적으로 2회에 걸쳐서 한정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충분히 자아를 인식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요성, 가치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행동과 적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전문직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간호사이미지에 부합되는 자기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 긍정적인 평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여 간호대학생의 직업적 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에 이루어지는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일회성의 프로그램이 아닌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간호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의 효과를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형성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들에게 필요한 간호전문직관의 형성에 도움을 준 결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본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은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다른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어 내적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단순히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간호와 연관된 사례 등을 제시하고 간호사로서의 신념, 가치, 소명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기에 자연스럽게 간호전문직관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지메이킹 교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신의 이미지를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오해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 바램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6]. 이때 이러한 교육 시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받는 대상자들을 고려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의 내용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간호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호에 대한 진정한 가치관과 의욕 등 정신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특히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과 태도, 간호직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으로써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1, 2학년의 시기에 간호사가 되기 위한 자기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면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정체감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의 형성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의 내용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다른 대상자들에게 적용한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그 효과를 입증한 연구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의 간호전문직관 향상 효과를 재확인하고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긍정적 사고, 자아존중감,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틀간 총 4시간의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간호대학생들의 이미지메이킹 효능감, 긍정적 사고 및 간호전문직관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4시간의 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시도한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추후 좀 더 발전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개발 및 정규교과과정 편성을 위한 실행가능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의 효과를 재평가하는 반복 연구 및 자아존중감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의 실시를 제안하며, 또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정립 및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해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다양한 간호대학생들에게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Kim KH.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image-making and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image-mak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6;13(1):269-289.
- Erikson EH. *Chil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Y: W.W. Norton & Co; 1963.
[http://dx.doi.org/10.1002/\(issn\)1099-0860](http://dx.doi.org/10.1002/(issn)1099-0860)
- Jun MH. A study of image-making education program [master thesis]. Naju: Dongshin University; 2011.
- Kim HS, Park WJ, Ha TH. The influencing factor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6;12(2):229-237.
- Kim HJ.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2;18(1):62-70.
- Jin HY.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awareness before and after image making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Beauty Cultural Arts*, 2013;2(2):3-11.
- Song EY.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facial image-making program to self-esteem, positive thinking and facial image efficacy [dissertation]. Seoul: Myong Ji University; 2008.
- Kim SJ. A influence of the image-making program to adolescent self-image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master thesis]. Cheongyang: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of Graduate; 2008.
- Rogenberg R.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NY: Basic books Inc; 1979.
- Secord PE, Jourard SM. The appraisal of body-cathexis and the self.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53; 17:343-347. <http://dx.doi.org/10.1037/h0060689>
- Cho OH. Influence of the image making program with regard to adult learner's self-esteem [master thesis]. Busan: Dong Eui University; 2007.
- Hong KH. The influence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BMI and body image on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006;30(2):348-357.
- Fredrickson BL.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2001;56(3):218-226.
<http://dx.doi.org/10.1037/0003-066x.56.3.218>
- Lee MR. Relationships of self-esteem with family-, friend-, school-, leisure-, and job-related variables in early adolescence: Focusing on positive and negative self-evalua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2005;16(2):263-293.
- Weis D, Schank MJ.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000;32(2):201-204. <http://dx.doi.org/10.1111/j.1547-5069.2000.00201.x>
- Ko YJ, Kim IK.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1;17(1):62-71.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Seong JA, Yeom EY, Do YS.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1):798-809.
<http://dx.doi.org/10.5392/JKCA.2014.14.11.798>
- Kim HJ, Oh YH, Oh GS, Suh DW, Shin YC, Jung JY.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positive thinking Scal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6;11(4):767-784.
-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http://dx.doi.org/10.2307/2575639>
- J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974;11:109-129.
-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 Park SH, Yeom MS. *Teaching-learning and instructional technology*. 2nd ed. Seoul: Hakjisa; 2007. p. 189-200.
- Pike RW. *Creative training techniques handbook: Tips, tactics, and how-to's for delivering effective training*. 3rd ed, Kim KS, You JP, trans. Paju: Gimmyoungsa; 2004.
- Hutchens D. *Outlearning the wolves: Surviving and thriving in a learning organization*, Kim CI, trans. Seoul: Badabooks; 2001.
- Carnegie D.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Choi ES, trans. Seoul: SIAT Pub.; 2004.
- Ha YS. A study on the effect of financial planner's image-making efficacy to self-esteem, positive thinking [master thesis]. Cheongyang: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of Graduate; 2009.
- Kim BS. The effect of youth image-making program on objected body consciousness and self-esteem. [master thesis]. Gyeongsan: Daegu Haany University; 2012.